

지역 소식통

정읍시, 무료 공공와이파이 확충 통신복지 실현 앞장

정읍시가 시민의 통신비 절감과 정보 접근성 확대를 위해 무료 공공와이파이를 대폭 확충, 통신복지 실현에 앞장서고 있다.

시는 2018년부터 관공서와 복지시설, 문화·관광시설, 교통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에 공공와이파이 설치를 시작해 현재까지 총 126개소에 무선인터넷 AP 360대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는 6천만원 예산을 확보하고 5월까지 시민이 자주 이용하는 샘골다리~죽림교 구간과 달하리~공감플러스센터 구간 종합경기장 내 테니스장과 축구장 등에 무선AP 15대를 설치할 계획이다.

하반기에는 과기부에서 추진 중인 무선 인프라 구축사업에 응모해 정읍매립장체육공원(야구장) 등 약 10개소에 무선AP를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공와이파이 구축사업은 코로나 19 이후 중요해진 비대면 서비스의 활성화와 디지털 소통의 한 축이 되고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부안군, 매화풍류마을 도시재생 결과공유회 진행

부안군도시재생지원센터는 지난 23일 2021 매화풍류마을 도시재생 주민공모사업 결과공유회를 부안 청년UP센터에서 진행했다.

결과공유회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약 4개월간 진행된 주민공모사업과 참가·문화거리 마을 축제 및 전시사업에 참여팀이 사업 진행 과정과 결과물을 발표하며 참여팀 간의 네트워크 형성을 통해 향후 부안군 도시재생 활성화를 도모했다.

부안군도시재생 지원센터는 2021 매화풍류마을 도시재생 주민공모사업을 통해 석암장가동 이리 외 10개 단체를 발굴하였으며 참가·문화거리 마을 축제 및 전시사업을 통해 매화풍류마을 주민협의회 외 5개의 공동체를 발굴했다. 참여 단체는 공연 등 다양한 분야에서 매화풍류마을 일대에 활기를 불어 일으켰다. /부안=김석진 기자

연수도시 메카 자리매김

정읍시·한국전기안전공사, 전기안전공사 교육원 첫삽... 내년 11월 완공 예정

정읍시와 한국전기안전공사가 협약을 맺고 추진 중인 전기안전교육원 조성사업이 내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25일 기공식을 열고 첫 삽을 떴다.

이날 기공식에는 유진섭 시장과 한국전기안전공사 박지현 사장, 조상중 시의회 의장, 조봉업 전라북도 행정부지사, 한명규 JTV 전주방송 사장, 임환 전북도민일보 사장, 산업통상자원부 황윤길 과장, 공사 임직원 등이 참석해 기공식을 축하했다.

전기안전교육원은 최첨단 교육 인프라 구축을 통한 전력산업 전문기술인을 양성하고, 공사 직원들과 전기안전 관련 수강생들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 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총사업비 450억원이 투입되며, 첨단 과학산업단지 내 36,266㎡(10,970평) 부지에 건축면적 11,723㎡(3,546평) 규모로 조성된다.

2023년 11월 완공과 2024년 2월 개원을 목표로 4층 규모의 교육관과 6층 규모의 생활관이 들어선다.

이곳 교육원 부지는 3대 국책연구소인 첨단방사선연구소와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안전성평가연구소를 비롯한 수려한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내장산 국립공원과 용산호 등이 인접해 있어 교육원으로서 최적의 환경 조건을 갖추고 있다.

특히 전주·광주 등 인근 대도시와 차량으로 40분 거리에 인접해 있고



한국전기안전공사 전기안전교육원 기공식

호남고속도로 내장산 나들목에서 5분 거리에 자리하고 있다.

또한 KTX와 SRT 등 고속철도 이용 시 서울 용산역과 수서역에서 1시간 20분 정도면 도착할 수 있는 최상의 지리적 접근성을 갖추고 있다.

시는 교육원이 완공되면 현재 교육 인원 대비 1.5배 이상 늘어난 매주 200여 명의 교육원 교육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일자리 창출과 지역 농축산물 소비는 물론, 지방세 세수 증대 등 경제의 시너지 효과로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지역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내장산 문화광장에서 용산호를 아우르는 생태·문화·관광 체험벨트 구축을 위해 추진 중인 내장산 자연휴양림과 미르샘 분수, 수변 둘레길, 천사 하이로드 등과 어우러질 경우 더 큰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고창천 인도교 설치... 시장 접근성 좋아진다

기존 징검다리 위 공사... 경관조명 야간 산책명소 기대

고창군이 고창천 신흥교(정동시장)와 반룡교(농협중앙회) 중간 위치에 인도교(야간경관조명) 공사를 추진한다.

지난 25일 고창군에 따르면 '고창천 인도교' 공사는 총사업비 9억원 을 투입해 길이 37m, 폭 2m(2열) 인 도교를 건설하고, 야간에 불빛을 투 시공을 위해 경관조명이 설치된다. 개통은 오는 6월말로 예정하고 있다. 인도교 중앙에는 고창천을 조망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고, 주출입구 양면에는 완만한 경사로 노인·장애 인 등 교통약자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된다.

현재 해당 구간에는 고창천을 가로 지르는 징검다리가 있다. 하지만 장마철에는 이용이 금지되고, 미끄러운 돌다리에 노약자와 지역 주민들이 다소 거리가 있는 교량으로 우회하는 등 큰 불편함을 겪고 있다.

이런 인도교 설치로 보행자들의 통행 편의가 크게 개선되고, 전통시장 접근성도 좋아져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고창군은 "주민들이 접근이 용이 하고, 산책을 즐기는 곳으로 자연친 화적인 하천공간을 역점적으로 추진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하천정비사 업에 대한 예산을 적극 확보해 재해 예방 및 친수공간 제공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전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부안군, 청년 공동체 활성화 위한 청년 커뮤니티 공익활동 지원

부안군은 부안 청년단체의 다양한 활동 기회를 제공하고, 청년들의 공동체 활성화 및 지역적 기반조성을 위해 2022년 청년 커뮤니티 공익활동 지원사업을 28일부터 3월 15일까지 모집한다.

활동기간은 5월부터 10월까지이며 군내 활동 중에 있는 청년 커뮤니티(법인 또는 단체)중 구성원의 70% 이상이 청년(1982년생~2003년생) 단체이어야 한다.

사업비는 200만원 2개 단체, 500만원 5개 단체 총 2,400만원으로 지역현안 등 문제해결, 청년 문화 예술 지원 확대, 봉사활동 등 본 사업의 취지에 맞는 활동으로 청년들의 공익 활동 및 온·오프라인 네트워크교류 및 협력 등을 지원한다.

이 사업은 부안군이 청년 공동체를 발굴하고 활성화 하여 앞으로 부안형 청년정책 대상인 청년들의

정책 수요파악 및 역량강화를 위해 추진한다.

부안군은 "청년 커뮤니티 지원 사업을 기회로 청년들이 스스로 프로젝트를 구상하고 실현하며 청년들의 활동이 부안군의 활력으로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했다.

사업신청은 부안군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청년 커뮤니티" 세부 사항을 확인하면 된다. /부안=김석진 기자



정읍시가 스마트 물 공급 체계 구축사업(Smart Water Management, 이하 SWM 구축사업) 마무리에 총력을 쏟고 있다.

'맑은 물 공급 최선'

정읍시, 상반기 내 스마트 물 공급 체계 구축사업 완료

정읍시가 스마트 물 공급 체계 구축사업(Smart Water Management, 이하 SWM 구축사업) 마무리에 총력을 쏟고 있다.

시는 ICT(정보통신 기술) 기반의 관망 수질 감시 및 관리를 위해 110억원(국고 70%)을 투입해 2020년부터 추진해오고 있는 SWM 구축사업을 빠르면 5월 중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2월 현재 공정률은 80%다.

SWM 구축사업은 지난 2019년 발생한 인천 붉은 수돗물 사태와 2020년 수돗물 갈따구 유출 발견 등으로 드러난 수도시설 관리의 문제를 개선하고 저하된 수돗물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다.

지금까지 상수도 시설은 지하에 묻혀있는 물리적인 한계 때문에 사고가 발생하기 전까지 문제를 파악하기 어려웠다. SWM 구축사업은 바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

먼저 스마트 상수도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소규모 유량·수압감시시스

템을 구축하고 누수 파악 및 물 사용량 관리를 위한 스마트 미터링과 수질 감시를 위한 수질 자동 측정장치를 주요 지점에 설치한다.

더불어 지하에 묻힌 관로의 위치를 도면 없이 확인 가능한 스마트 관로 정보 인식체계를 마련하고, 관로 내부에 축적된 이물질 제거를 위한 관세척과 이상 수질 발생 시 자동으로 오염물질을 외부로 배출하는 자동(원격) 드레인 설비를 구축한다.

이에 따라 사업이 완료되면 상황실에서 정읍지역 모든 수돗물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고, 계측기를 통해 상수도 수질과 수압, 관망 현황 등 데이터의 체계적인 수집과 분석이 가능해진다.

특히 시는 실시간 관리체계와 분석된 데이터를 활용하면 누수 예방을 통한 연간 8억여 원의 예산 절감은 물론 더욱 안전하고 안정적인 수돗물 생산과 공급 체계가 구축된다고 덧붙였다. /정읍=김대환 기자

고창군, 벼 정부보급종 차액보상금 지원

고창군이 벼 정부보급종 공급가격에 대한 차액보상을 올해에도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정부보급종 공급가격에 대한 차액보상 지원은 정부보급종 매입가격과 농가 공급가격의 차액을 보전해주는 사업이다. 전북 14개 시·군 중 유일하게 고창군이 지원하며 농가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고창군은 우량종자의 안정적 농가공급으로 쌀 품질 향상에 도움을 주기 위해 국립종자원에서 생산한 수광, 신

동진, 새누리 등 7개 품종을 농가로부터 신청 받았다.

올해 고창군 벼 정부보급종 공급량은 171.5톤으로, 20kg 포대로 8578포가 공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포대당 5820원의 차액보상금이 농가에게 지원된다.

보급되는 메벼를 기준으로 보면 2021년산 보급종 공급가격 4만9020원에서 차액보상금을 뺀 4만13200원을 농가가 지급하면 농협을 통해 공급 받을 수 있게 된다. /고창=김영식 기자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